모든 것은 幻… '無'로 빚어낸 말의 사원

〈言〉 〈寺〉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④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 上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1842~1898)는 베를렌느, 랭보와 함께 프랑스 상징주의 3대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순수시의 탐사자'라고 언급할 만큼 순수시, 즉 시의 이상적 형태를 위해 끈질기게 추구한 수도사로 평가된다. 일생동안 그는 시를 종교처럼 생각했다. '시라는 것은 독자가 그 열쇠를 찾아야만 하는 신비'라고 생각했던 그는 시를 평범하고 안이하게 쓰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내용을 암시하고 대상을 환기시키는 상징적인 교감법을 사용했으며 그의 시어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갈수록 난해한 시 〈에로디아드(1870)〉, 〈목신의 오후(1876)〉, 〈주사위 던지기(1898)〉 같은 시를 쓰게 된다.

이러한 시적 추구과정에서 그는 무(無)와 직면하게 된다. 특히 허무와 죽음의 의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혼돈의 서' 〈이지튀르〉에서 그가 도달한 궁극적 결론은 '허무가 진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말라르메가 말하는 "'허무'는 낭만주의적 감성으로서의 허무주의나 도덕적 허무의식과는 다른 '절대' 또는 '무', '공(空)'과 동의어로 이해해야 하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존재론적 개념을 가리킨다"는 이가림 선생의 진술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그의 작품에서 '허무', '무', '텅빔', '침묵' 등 부재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목신의 오후〉를 중심으로 님프들의 부재 인식과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허공 꽃'의 이데와 연계해 그 상관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말라르메가 말한 새로운 시학이란 한마디로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키는 효과를 그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는 언어의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의도로 이루어지며 모든 언어는 불러일으키는 감각 앞에서 소멸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 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송이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내 목소리가 어떤 테두리를 긋는 망각의 저 밖으로, 모든 꽃다발들 속에 부재하는 꽃, 꽃의 달콤함 그 자체가 음악적으로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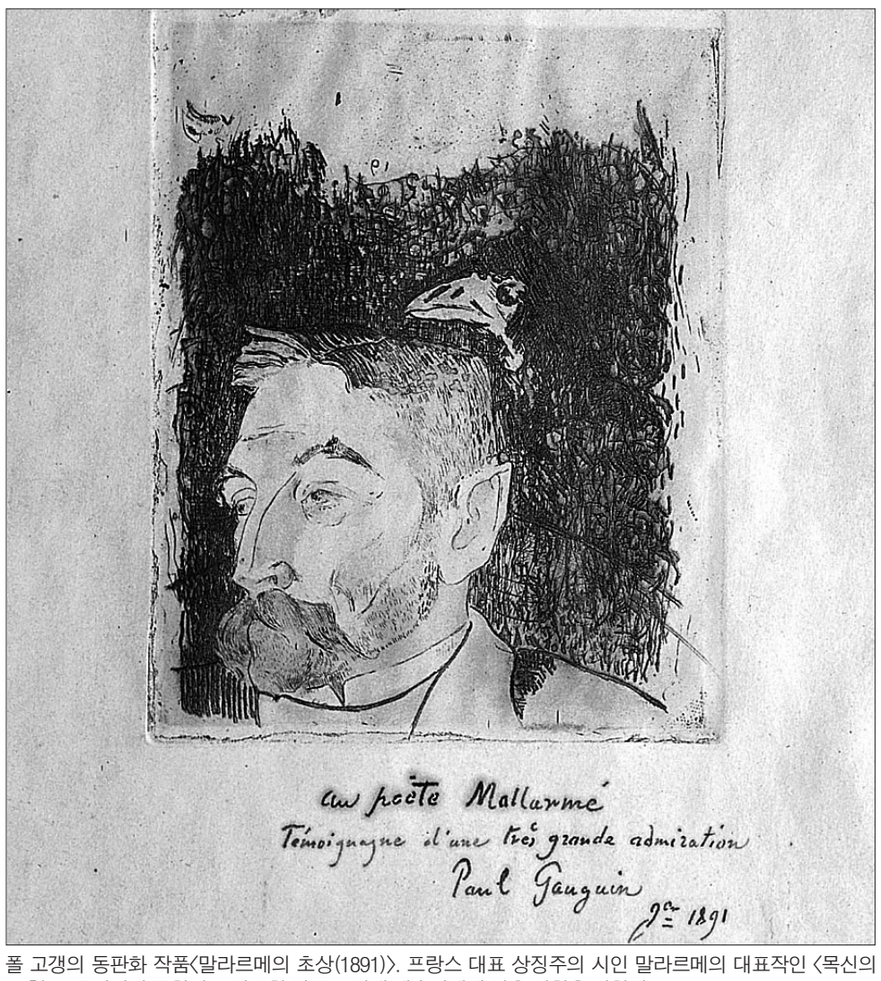
여기에서 그가 드러내보이고자 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써의 꽃이 아니라 어떠한 꽃다발에도 부재하는 꽃의 '이데'라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이미지의 세계는 이미지의 드러냄이라기보다는 이미지의 사라짐, 이미지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부재에 이르기 위해 이미지 혹은 사물현상에 대한 '인상'은 제거되고 파괴되어야 한다는 그의 시론을 접했을 때, 김춘수의 이름이 떠올랐다. 말라르메의 '한 송이 꽃'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의 시가 생각났던 것이다. 김춘수 시인은 "시는 관념으로 굳어지기 전의 어떤 상태가 아닐까 하는 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며 〈나의 문학 실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존재의 모습)을 그린다. 흡사 물질시의 그것처럼 된다. 묘사라는 것은 결국 이미지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때의 이미지는 서술적이다. (생략) 서술적 이미지는 그 배후에 관념이 없기 때문에 존재의 모습(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그 이미지는 순수하다. 이리하여 나는 이런 따위의 이미지로 된 시를 순수시라고도 하며 무의미의 시라고도 하게 되었다.(생략)"

말라르메에 의하면 그의 시적추구의 목표는 "현실에서 '이데'로의 신성한 전환에 있다"며 "'이데'의 실현을 위해서는 언어의 의미기능 이외에 언어의 음악적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시적탐구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와 언어 본질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존재 근원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그는 필연적으로 부재를 만나고, 언어의 본질에 대한 탐구과정에서는 언어의 한계에 부딪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음악과 만난다. 그리고 그는 존재의 근원을 '이데'라는 말로 암시한다. 그리하여 '부재', '이데', '언어', '음악'은 그의 시학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된다.

프랑스 상징주의를 이끈 시인
'詩의 이상적 형태' 화두 삼아
無 사상과 직면… 작품 담아내

신화 소재 '목신의 오후' 대표작
부재 · 無를 상징 시어로 풀어내



폴 고갱의 동판화 작품〈말라르메의 초상(1891)〉. 프랑스 대표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의 대표작인 〈목신의 오후〉는 드뷔시가 교향시로 작곡할 정도로 당대 예술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숲지기 악신(樂神)이자 반인반수(半人半獸)의 목신을 등장시킨 〈목신의 오후〉야 말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목신의 오후〉는 12음철(音綴)의 시구 110행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 시 사상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피리를 부는 악신 폰(Faune)을 등장시킨다. 무대는 시칠리아 섬 라도 강변이다. 클로드 드뷔시가 〈목신의 오후 서곡〉을 작곡해 1894년 12월에 초연하고, 아름다운 시와 음악에 따라 무용가 니진스키가 러시아 발레제(파리)에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다.

열사(熱沙)의 숨 막히는 오후, 목신은 육욕(肉慾)적인 꿈을 꾼다. 그는 꿈속의 매혹 상태를 연장시키려 애쓴다. 잠결에 눈을 뜨니 물가 기슭 주변에 님프들의 육체로부터 풍기는 장미색의 일렁거림이 느껴진다. 꿈에서 보이는 것인가, 현실인가? 기억을 더듬는다. 그러자 늪의 기슭에서 알몸의 님프들이 어른거린다. 님프들은 목신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여 물속으로 몸을 숨긴다. 그때 두 님프가 서로 엉켜 안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목신은 그 둘을 함께 끌어안고 장미 덤불 속으로 달려간다.

그는 두 명의 님프들의 뒤엉킨 머리칼을 입맞춤으로 풀어주려 한다. 그러자 목신은 육욕의 예감으로 힘이 시들어 빠져버리게 되고, 그 틈을 탄 님프들은 목신의 팔 사이에서 벗어나 도망친다. 노획물을 놓쳐버린 목신은 헛되이 갈대 줄기를 포옹하고서 갈대 풀피리를 불며 마음을 달랜다. 그리고는 나른한 몸을 뜨거운 모래사장에 눕히고 다시 잠든다. 갈망의 대상인 님프들의 부재를 통해서 욕망의 허상이 꿈과 같은 '허공 꽃'이 아닐까를 유추해 보게 된다.

여기 물의 요정들, 그들 영속할 수 있다면 그 맑고 연한 그들의 살색, 얽힌 잠 속에 졸고 있는 대기 속에 하늘거린다. 내가 꿈을 사랑한 건 아닐까? 생각해 보자…… 혹 네가 말하는 여자들이네 공상하는 감각의 소망에서 생긴 건 아닌지!

-〈목신의 오후〉 中

말라르메답게 신중한 통찰이 이어진다. 꿈에서 관능의 유희를 즐기다 깨어난 목신은 혹 이 기이한 '감각'이 지어낸 거짓 현상이 아니었나를 반문한다. 여자들은 너의 우화적인 감각의 욕구에서 나온 소망이 아닌가? 그는 왜 자꾸 거짓 현상에 대해 주목하는 것일까?

토지관리국 말단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현실세계에 대한 인식은 비극적이었다. 다섯 살에 어머니를 잃고 어린 누이동생의 죽음을 경험한다. 가난한 외조모 밑에서 성장했으며 결혼 후 어린 외아들마저 잃고 만다. 인간은 한낱 '물질의 헛된 형상'일 뿐이며 '육체는 슬픈 것'이고 세상은 온통 환자들로 가득 찬 하나의 거대한 병실이라는 비극적 세계관 속에서 그는 허무에 집착하게 된다. 그럴수록 그는 '시인의 이상'을 순수시 〈에로디아드〉에 담고 싶어 한다. 이 작품은 유모와 공주 '에로디아드'의 대화로 이어진다.

공주의 그 냉정은 미지의 신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의 보물"을 맡기기를 몰래 애원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유모가 말 한다. 그 눈부신 광채와 "헛된 신비"를 누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간직하느냐고 묻자 공주는 "자신을 위해서죠"라고 짧게 답한다. 유모는 공주에게 "혼자서 자라나 물속에 하염없이 비춰 보는 제 그림자 외엔 아무런 감동도 없는 서글픈 꽃"이라고 말한다. 공주는 자신의 고독한 삶이 "최후의 매혹"이라고, 고독이 매혹의 완성이라고 외친다. 유모는 공주의 고집스런 순결의 염원 때문에 어쩌면 공주가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순수시, 순결의 염원에 빠진 이는 다름 아닌 시인 자신이다.) 에로디아드는 유모에게 하직을 고하며 "자신의 헛된 나르시스적 순결이 거짓"이라고 외친다.

〈에로디아드〉에서 만난 '무와 공허', 〈목신의 오후〉를 쓰면서 겪어야 하는 절망의 나날은 그를 1년 동안이나 실어증을 앓게 했다. 한 해가 지난 뒤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했다.

무서운 한 해를 보냈네. 내 사고(思考)는 사고되었고 나는 순수 개념에 도달했네. 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 그 여파로 내 존재가 겪었던 모든 것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완전히 죽었네. 〈중략〉 내 승리를 위한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 난 사고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울 속의 나를 들여다봐야만 한다네. 거울이 만약 내가 지금 자네에게 글을 쓰고 있는 이 책상 앞에 없다면 나는 다시 무(無)가 되어 버릴 것 같네.

-서한 카잘리스에게, 1867년 5월

다행스럽게도 그는 완전히 죽었고 어떤 무시무시한 감성을 통해 자신의 순수에 도달했다. 그는 의식이 끊어진 자리에서 무아(無我)를 체험한 것이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빈 시간 속에 들어가 영원을 엿본 시간체험을 한 것이다.

〈에로디아드〉와 〈목신의 오후〉는 거의 같은 시기에 씌어져 서로 내외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반짝이는 차가운 이성의 불길과 감각적 욕망에 불타는 뜨거운 열정은 마치 샴쌍둥이처럼 그의 내면에 공존하는 쌍두사(雙頭蛇). 그건 음양이 본래 하나인 것처럼 둘이 아니었다. 위에서 살펴본바 그를 절망케 한 심연은 '무'와 '우리는 물질의 헛된 형태일 뿐'이라는 비극적 인식이다.

그렇다면 정신은 왜 거짓인가?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오온(五蘊, 色受想行識)'으로 설명한다. 색은 우리의 몸을, 수 · 상 · 행 · 식은 정신 작용을 지칭한다.

정신적인 현상이나 그 작용은 영혼과 같은 존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과 그것에 관계되는 대상과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근인 눈, 귀, 코, 혀, 몸, 마음(眼耳鼻舌身意)이 6경인 물질, 소리, 향, 맛, 감촉, 생각(色聲香味觸法)을 만날 때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등의 정신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날 때 식(識)이 일어나고 식이 발생하면 다른 정신활동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마음은 6근, 법은 6진, 몸은 허깨비, 어디에 내가 있겠는가? 6근과 6진이 환상과 같아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없는 것이니 당연히 그 둘에 의하여 드러나는 생각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6근, 6진, 6식(생각), 이 셋은 모두 허상이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 눈앞에 나타난 것이 하나의 '허공 꽃'이다. 바로 지금의 '나'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시적 화자인 목신을 통해 자신의 사유를 확장시켜나간다.

오 반드시 오고야 말 징벌……
아니다, 하지만, 언어가 부재하는 나의 영혼, 무거워진 육체는 정오의 씩씩한 침묵 앞에 결국은 쓰러진다. 이제 그만하고, 불경한 생각을 잊은 채, 목마른 모래 위에 잠들어야 한다. 아, 포도주의 효험 좋은 별들에게 입술을 여는 것은 이리도 좋은가! 한 짝의 수정들이여 안녕히! 나는 그대가 둔갑한 그림자를 보리라.

-〈목신의 오후〉 중



맹난자 수필가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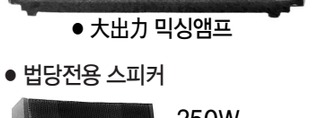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여러분의 사암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코자 하오니 종도 여러분은 기한 내 재등록을 하시여 사암의 주지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에 관심과 동참을 원하시는 스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불어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소속으로 있다가 제적, 탈종된 승려도 분한신고를 하면 구제 하고자 합니다.

아 래

① 실시기간 : **2016년 7월 28일 부터**
② 접수마감 : **2016년 9월 29일 까지**
③ 구비서류 :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재등록 신청서 ····· 각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3개월 이내) ····· 각 1부
·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이력서 각 1부 · 승려증 · 증명사진 3매
④ 접수장소 :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번지)
⑤ 전화번호 : 054-974-2605 / 팩스 : 054-974-2705

※ 위 기간에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의 종도로서 지위를 인정치 않으며 세무서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찰등록증 취소 및 말소 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이 1년 이상 미납된 사찰과 종단에 비협조적인 종도와 사찰은 정리되며 신문에 공지 합니다.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